

강이야기

4

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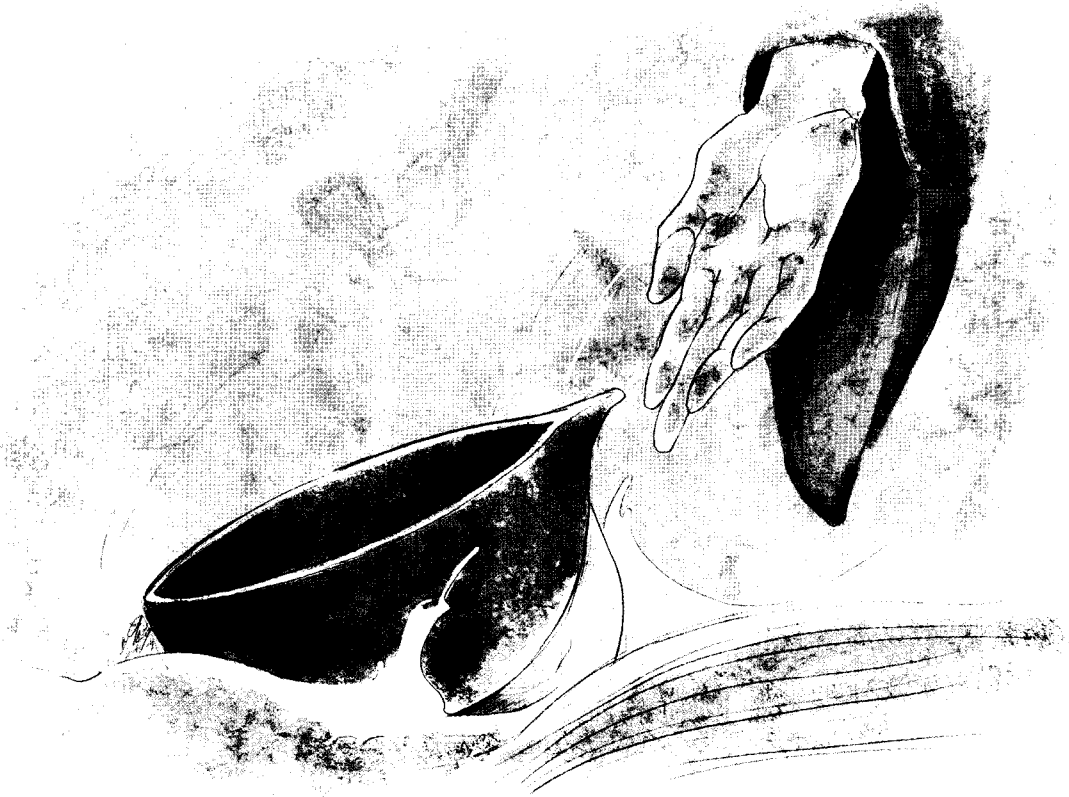
신 현 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한강에서 죽은 뱃사공,
풍신이 되다

병자호란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물밀 듯이 쳐내려오자, 인조 임금은 한양을 떠나 강화도로 피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모시고 한강 나루터로 갔습니다. 나루터에는 임금을 강화도까지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배 위에 오르자, 뱃사공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의 이름은 손돌인데, 배를 부리는 솜씨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여 신하들이 특별히 그에게 뱃사공 일을 맡긴 것입니다.

손돌은 부지런히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한강 하구로 나아갔습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배 안에 앉아 있던 임금은 무엇을 보았는지 흠칫 놀랐습니다.
 “저, 저기 좀 보아라. 여울이 있지 않느냐?”
 임금은 앞쪽을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쳐다보니 정말 여울이 있었습니다.
 “여, 여울이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뱃사공은 왜 저 위험한 곳으로 배를 모는지 모르겠다. 어이, 뱃사공! 배가 여울 쪽으로 가도 아무 일 없겠느냐?”



손돌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강화도까지 안전하게 모실 테니 상감마
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다. 배는 여전히 물
살이 세차게 흐르는 여울 쪽으로 가니,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뱃사공,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배를 돌려라. 여울 쪽으로 가
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임금이 명령해도 손돌은 듣지 않았습니다.

“상감마마, 강화도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합니
다.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렇게 위
험하지 않으니 저만 믿으십시오.”

손돌이 고집을 부리자, 임금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
습니다.

‘저자가 혹시 적군이 보낸 첩자가 아닐까? 배를 뒤집히게
해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밀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 명령을 어기고 기를 쓰고 배를 여울 쪽으로 모

는 것이겠지.’

임금은 뱃사공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이 수상하구나. 배를 위험한 곳으로 모는 걸 보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손돌은 노를 젓다 말고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상감마마,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상감마
마의 목숨을 노리겠습니까. 저는 상감마마를 빠르고 안전하
게 모시려고 여울 쪽으로 배를 몰고 있을 뿐입니다.”

“듣기 싫다! 네놈의 검은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적군
의 사주를 받아 나를 죽이려는 거지?”

“상감마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흉계를 꾸미겠습니까?”

“나는 네놈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다. 여봐라, 빨
리 저놈의 목을 베어라!”

임금의 명령으로 한 신하가 칼을 뽑아 들고 손돌에게 다

가갔습니다.

그러자 손들은 임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감마마를 강화도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하다니 참으로 원통합니다.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무사히 강화도까지 가고 싶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바가지를 드릴 테니 이 바가지를 물 위에 띄우십시오. 그리고는 바가지가 이끄는 대로 배를 저어 가십시오. 그러면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할 것입니다.”

손들은 품속에서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큰절을 올리더니 신하의 칼을 받았습니다.

손들이 죽은 뒤 임금은 다른 뱃사공을 구해 와 노를 젓게 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은 배를 모는 솜씨가 형편없었습니다. 뱃길을 못 찾아 허둥대고, 바람이 불어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임금은 보다 못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죽은 뱃사공이 바친 바가지를 물 위에 띄워라.”

뱃사공은 바가지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가 흘러가는 대로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신통하게도 바가지는 임금이 탄 배를 강화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연히 뱃사공을 의심하여 아까운 목숨을 빼앗았구나. 여봐라, 뱃사공을 후하게 장사지내 주고, 무덤 옆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 주어라.”

손들이 죽은 날은 시월 스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월 스무 날만 되면 한강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배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손들이 풍신(바람신)이 되었군 그래. 얼마나 원통하면 자기가 죽은 날 큰 바람을 일으켜 배를 못 다니게 할까.”

한강 뱃사공들은 이렇게 말하며 해마다 시월 스무 날이면 사당에서 손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